
2018년 용진군의회

공무 국외연수 보고서

2018년 10월



용진군의회

I. 서론 - 공무국외연수 개요

II. 본론 - 주요 연수내용

① 터키 일반현황

② 지방행정제도

③ 공식 방문기관

1. 이스탄불 관광청

2. 복합농장

3. 다를라세제 노인복지기관

④ 주요 연수현황

1. 성 소피아성당, 블루모스크

2. 한국공원, 데린구유, 파샤바 계곡

3. 안탈라, 파묵칼레, 에페소

4. 보스포러스해협, 그랜드바자르, 톱카프 궁전 등

III. 결론 - 시사점 및 특이사항

I 서 론 - 공무 국외연수 개요

1. 여 행 국 : 터키

2. 여행목적

동·서양의 문화와 제도가 공존하고 있는 형제의 나라 터키 방문을 통해 터키의 문화정책과 역사, 관광, 제도 등을 살펴보고 우리지역에 벤치마킹 가능한 시스템과 시책을 개발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3. 여행기간 : 2018. 10. 8(월) ~ 10. 16(화) / 7박9일

4. 연수인원 : 10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웅진군의회	의 장	조철수	남	
〃	부 의 장	방지현	여	
〃	의 원	신영희	여	
〃	의 원	김택선	남	
〃	의 원	김형도	남	
〃	의 원	홍남곤	남	
의회사무과	과 장	이성림	남	
〃	의사담당	최철영	남	
〃	전문위원	임병찬	남	
〃	주 무 관	이문희	여	

5. 주요 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제1일 10/8 월	인 천 이스탄불	13:40 19:40	인천 국제 공항 출발 (비행소요시간 약 11시간 40분)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 도착 호텔 도착 및 투숙	
제2일 10/9 화	이스탄불 앙카라	08:00 10:00 19:00	호텔 조식 후 ♣ 공식 방문 [이스탄불 관광청] ♣ ♣ [성 소피아성당] 내부 관광 앙카라 이동 호텔로 이동하여 석식 및 호텔 투숙	
제3일 10/10 수	앙카라 가파-도키아	07:00 08:00 18:30	호텔 조식 후 ♣ 한국공원, 아타튀르크 영묘 등 관광 후 ☞ 소금 호수 경유하며 가파도키아 향발 / 약 3시간30분 소요 ♣ [괴레외 야외 박물관], 파샤바 계곡 등 관람 호텔로 이동하여 석식 및 호텔 투숙	
제4일 10/11 목	가파도키아 안탈라	07:00 08:00 19:00	호텔 조식 후 ☞ 안탈라 향발 (약 6시간 소요) ♣ 이블리 탑, 하드리아누스의 문 등 안탈라 관광 호텔로 이동하여 석식 및 호텔 투숙	
제5일 10/12 금	안탈라 파묵칼레	07:00 08:00 18:00	호텔 조식 후 ☞ 파묵칼레로 이동 / 약 4시간 소요 ♣ 공식방문[복합농장] ♣ Bayrak Tarım Ve Besicilik ♣ 고대유적지 [히에라폴리스] 관람 호텔로 이동하여 석식 및 호텔 투숙	
제6일 10/13 토	파묵칼레 에페소 이스탄불	07:00 08:00 17:10 18:30	호텔 조식 후 ☞ 로마유적으로 유명한 에페소 향발 / 약 3시간 소요 ♣ 대극장, 스콜라스티카 목욕탕 등 관람 이스탄불 이동 석식 후 호텔로 이동하여 투숙 및 휴식	
제7일 10/14 일	이스탄불	07:00 09:00 13:00 18:00	호텔 조식 후 ♣ 보스포러스 해협 해양시설 시찰 ♣ [블루모스크][톱카프 궁전] 등 관광 ♣ 현장방문 그랜드바자르, 수산시장 석식 후 호텔 투숙	
제8일 10/15 월	이스탄불	08:00 09:00 14:30 21:20	호텔 조식 후 ♣ 프로드롬 광장&오벨리스크 ☑ 공식방문[사회복지시설] DARULACEZE 이스탄불 국제공항 출발 (비행소요시간 약 10시간 05분)	
제9일 10/16 화	인 천	13:35 16:00	인천공항 도착 군청 도착 후 해산	

Ⅱ

본 론 - 주요 연수내용

□ 터키 일반 현황

- 공식국명 : 터키 공화국 (Türkiye Cumhuriyeti, Republic of Turkey)
- 수 도 : 앙카라(인구 500만명)
- 인 구 : 8,161만명(2017년 기준)-세계16위
- 면 적 : 783,562km²(한반도의 7배)-세계37위
- 언 어 : 터키어(Turkish), 일부 쿠르드어(Kurdish) 및 아랍어
- 종 교 : 이슬람교-수니파 (98%) - 헌법상 정교 분리
- 종족구성 : 터키인 90%, 쿠르드인 및 아랍인 9%, 기타 1%
- 경제현황
 - 전 체 GDP : 8,412억달러(2017년 기준)-세계17위
 - 1인당 GDP : 10,434달러(2017년 기준)
 - 한국-터키 교역규모 : 64억달러

○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 위치해 있는 터키는 히타이트에서 로마, 비잔틴제국, 오스만 대제국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거쳐 간 곳이다. 초대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어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터키를 찾음과 동시에 오스만 투르크제국의 화려했던 이슬람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는 이슬람국가로 자리 잡았다.

축구를 좋아하고 6.25전쟁 시 참전으로 맺은 인연으로 인하여 한국인을 코렐리(Koreli)라고 부르며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이다.

○ 지리

- 총면적은 783.562km²로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

하고 있는 터키는 에게해, 지중해, 마르마라해, 흑해를 접하고 있다. 보스포루스 해협, 마르마라해, 다르다넬스 해협을 경계로 아시아지역인 아나톨리아와 유럽지역인 트라케로 나누어진다.

- 터키는 위치에 따라 흑해, 말마라, 에게해, 지중해, 중앙 아나톨리아, 동쪽 아나톨리아, 남동 아나톨리아의 7개 지역으로 나뉜다.

○ 기후

- 지중해 연안지방의 전형적인 온난한 기후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터키의 독특한 지형으로 인해 변화무쌍한 기후대가 나타나곤 한다. 흑해 연안부의 따뜻한 기후를 즐길 수 있는가 하면 고산들로 가득한 산악지대에서는 연중 내내 새하얀 설경을 경험할 수 있다.

○ 사회, 문화

- 오늘날 터키 국민들은 그들의 조상이 중앙아시아 동북부에서 기원하여 서쪽으로 이동해 왔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16개 군주국이 흥망을 거듭하여 터키인들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하게 된 것은 서기 10세기경이라고 한다. 중세에 아랍지역을 횡단하여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터키인들의 대부분이 회교로 개종하였으며, 아랍문자를 도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 터키 국민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자연 숭배사상과 풍습을 오늘날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풍습과 근본적으로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한국어와 같은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터키어는 문장 구성순서, 모음 조화, 어미 활용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말과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는 점이다.

○ 종교

- 터키 국민의 98%는 이슬람교도이며, 이외 아르메니아, 유대교, 카톨릭, 그리스정교 등이 있다. 터키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세속화된 나라로서,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종교적 규율 적용에는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법률이나 사회기구가 이슬람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전통과 관행이 매우 중요시 된다. 회교 국가이나 토,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등 서구화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 풍속

- 터키는 종교 공휴일로서 쉼케르 바이람과 쿠르반 바이람이 있으며, 매년 날짜가 다르다. 바이람 전 한달 동안은 라마단으로 일출부터 일몰 시간까지 금식하는데, 가장 큰 종교 축제인 바이람 기간 중에는 새 옷을 입고 친척 방문 등을 하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카드를 보낸다. 터키인들은 친족과 가족의 유대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가장의 권위를 존중한다.

○ 국민성

- 터키 국민은 전통적으로 체면과 무예를 존중하며 매우 정열적이고 다혈질이나 서두르지 않으며, 신앙의 전사라고 불리는 가지(Gazi)의 정신을 윤리의 주요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터키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며,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동서양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

□ 지방행정제도

1. 지방행정 체계

- 터키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81개 주(Province)와 695개 군(District), 35,885개 면(Sub-District)으로 나누었으며, 주지사와 군수 및 면장은 내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터키의 지방행정 체제는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각 주에는 주지사를 장으로 하는 민선 주의회(Provincial Council)가 있으며, 인구 2천명 이상을 단위로 구성되는 시(Municipality)는 전국적으로 1,984개가 있고, 각 시에는 민선 시장과 시의회가 있다.
- 이밖에 전국적으로 34,974개의 리(Village)가 있으며, 이장(Headman)과 리의회(Concil of Elders) 의원은 민선으로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지역주민 가운데에서 선출하고 시에는 동이 있으며, 동장 또한 민선이다.

2. 지방의회의 구성

- 터키의 지방의회는 주의회와 시의회, 빌리지 의회가 있다.
- 주의회와 시의회 의원은 투표권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빌리지 의회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준다.
- 빌리지(Village)-리의회
 - 빌리지 의회(Concil of Elders)는 직접민주주의 예로서 모든 지역유권자로 구성된다. 빌리지 의회는 특정한 행정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면 법 규정에 의해서 선택적이라고 규정된 특정한 세금에 관해서 만약 빌리지 의회가 의무적이라고 결정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 빌리지 집행위원회는 선출직 위원과 비선출직(당연직)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위원 수는 8명~12명 사이로 빌리지의 주민 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위원회 임기는 5년이며 비선출직 위원은 빌리지의 학교장과 신앙심이 깊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위원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빌리지 대표의 지출을 감독하고 예산을 결정하며, 빌리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한다. 또한 부과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 등을 수행한다.

- 빌리지의 장은 “Muhtar”라 칭하며 공무원 중 빌리지 의회에서 선출한다. 빌리지의 장은 정부사업과 지역사업에 관여한다.

○ 시(Municipality)

- 시의회 의원은 5년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의원의 수는 각 시의 인구수에 따라서 9명~55명으로 이루어진다. 시 집행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시의원과 시청 공무원 중에서 구성된다. 시의원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시청 공무원 수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시 의회의 의원이나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세 번 연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면직대상이 된다.
- 시장은 5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시장은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에 입후보하나 일단 시장으로 당선되면 소속 정당의 행정적인 직위는 사임해야 한다. 시장과 시 집행위원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최종 발언권이 있는 시 의회가 우선권을 갖는다. 시장이나 시집행위원회가 의회의 결정에 만족할 수 없을 때에는 주지사에게 해결방안을 요청한다. 그럴 때 최종 결정은 주지사가 담당하는 행정의회와 최고행정기관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무회의는 결정하기 전에 주지사를 통해 분과위원회의 견해를 듣도록 하고 있다.

○ 주(Special provincial administrations)

- 주의 의결기관은 주 의회이다. 주 의회 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5년마다 선출된다. 주지사는 주 정부의 정치적 책임자이며, 정부대표이다. 주지사는 각료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한다. 주지사는 병무와 사법행정을 제외한 중앙정부 관련 업무 외에 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을 포함하여 주 정부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주지사는 시의회의 지역예산 수정과 승인 등을 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지사의 감독은 지역의회 결정의 위법여부를 확인하는데 한정된다. 주지사는 주 의회에 연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주 의회가 2/3의 투표로 불만을 표시하면 주지사는 내무부 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3. 교육제도

- 터키의 교육 여건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터키인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와 지방 간 교육시설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23년 터키공화국이 건국된 당시에는 10명 중 1명만이 아랍어로 표기된 책을 읽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의 90% 이상이 라틴문자로 표기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터키에서 초등 교육과 중등교육은 무료이며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을 치른 후 합격한 사람만이 진학할 수 있다. 터키에는 예술고등학교, 스포츠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등 다양한 성격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중학교 졸업 후 약 80% 정도의 학생이 대학 입학 을 목표로 하는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실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약 50% 수준이다. 그리고

직업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같은 전공 계열의 2년제 전문대학에 무시험으로 진학하고 있다고 한다. 터키에는 169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중 가장 오래된 대학은 1453년에 설립된 이스탄불 대학이다.

□ 공식 방문기관

1. 이스탄불 관광청(T.C. Kültür Turizm Bakanlığı)

- 주소 : Alemdar Mh., Bab-i Ali Cd. No:28, 34110 Fatih/İstanbul
- 터키의 관광진흥부는 1963년 7월 2일 창설되었으며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스탄불 관광진흥청은 이스탄불 파티히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스탄불 관광청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터키는 총 7,200km의 해안선과 436개소의 블루플래그 해변을 보유해 스페인에 이어 세계 38개국 중 2위, 1,500개소의 온천 수는 유럽 1위 수준에 달할 만큼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이스탄불은 2015년 마스터카드가 뽑은 세계 5위의 방문도시로 연간 1180만명을 기록했고, 안탈리아는 2015년 유로모니터가 뽑은 세계 10위의 방문도시로 연간 1110만명의 외국인 방문객 수를 기록하였다.
- 2015년 3,94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터키의 관광산업 매출수익은 2015년 11월 러시아 전폭기 격추로 촉발된 러시아의 관광객 터키 방문 제한, 2016년 터키 군 쿠데타 시도와 쿠르드 반군의 공격으로 야기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221억 달러로 격감하였다.
- 2017년 4월 이래 러시아와 관계정상화에 따른 러시아 관광객의 증가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8년에는 터키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3,700만~3,800만 명으로 증가해 관광산업 매출수익

300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터키 정부의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핵심대책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관광운영사에 지원하고, 안전 문제로 여행일정 취소사례가 많았던 건강, 스포츠 관광분야 및 크루즈 여행분야 관광객 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리스 등 인근 지중해 연안국들로부터 패키지 여행 유치, 관광객 유치가 급격히 감소한 유럽국가로 부터의 관광객 수 회복, 아시아지역 관광객 유치 노력 확대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저조로 관광산업 주요 도시의 호텔 룸 가동률이 크게 낮아져 터키 관광산업이 입은 피해는 300억 달러에 달하지만 2018년부터 본격적인 관광산업 회복세로 우리나라로부터의 관광객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터키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과 관광산업 유틸리티 사용료 및 세금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향후 관광산업은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주요 질의답변 내용

- Q. 터키여행의 안전성 문제는 어떠한가?

A. 과거에 국경의 시리아 쪽 이란, 이라크 소수민족 쿠르드 족과의 내전이나 IS의 폭탄테러 등의 문제가 있어 관광객이 많이 감소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터키뿐 만아니라 서유럽에도 테러는 공존하였으며 현재 상황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작년부터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위험요소는 어느 국가에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Q. 리라화 폭락으로 인한 관광분야 영향은 어떠한가?

A. 환율은 단순히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1리라가 한국 돈으로 800원이었으나 현재는 1리라에 200원으로 4분의1 정도로 환율이 떨어졌으니 이곳을 방문하여 경제적인 여행이 될 수 있다.

- Q. 한국의 브랜드들에 대한 터키인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A. 한류가 대단해서 한국의 브랜드나 제품들을 모두 좋아한다. 한국 화장품은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고 현대자동차 공장이 이스탄불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1997년 건설되어 인지도가 아주 높아 프랑스 르노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을 정도이다. 삼성의 핸드폰과 노트북, LG의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굉장한 인기이며 최근 건설 쪽으로도 붐이 일어서 SK건설이 진행한 해저터널 개통식에 현 대통령도 참석하였다.

- Q. 관광객을 위한 교통정책은 어떠한가?

A. 관광객이 타는 버스는 의무적으로 새 차만 사용해야하며 3년 이상된 차량은 관광버스로 사용할 수 없다.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공항버스, 일반버스, 트램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며, 국제면허증 소지자는 사용가능한 렌터카 회사도 많다.

- Q. 추천할 만한 관광지역은?

A. 이스탄불 프린세스 섬은 공해방지 차원으로 차량 진입 불가지역으로 운영하여 마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오래된 전통 집, 부자들의 썸머 하우스로 이용되는 별장과 특유의 분위기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콕체라는 지역은 유기농으로만 재배한 올리브와 포도를 이용하여 오일과 와인을 생산 판매하여 상품가치가 매우 높아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다.



2. 복합농장(Bayrak Tarım Ve Besicilik)

○ 주소 : Korucuk Mahallesi, 189. Sk., 20180 Pamukkale/Denizli

○ 특징

- 터키 파묵칼레에 위치한 대단위 복합 농장으로 야채, 밀, 축산, 과일 등을 재배하는 농장이다.

○ 주요 질의답변 내용

- Q. 가축 사료 구입처와 우유, 고기 등의 납품방식은?

A. 옥수수나 밀짚 등 자체 농사에서 나오는 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며 별도로 사료를 구입하지 않는다. 우유나 치즈, 육류 등은 특성상 직접가공이 어려워 육류는 도살장에서 처리하고, 소젖을 짜서 가까운 우유공장에 납품하고 공장에서 가공하여 유통하고 있다.

- Q. 각종 야채와 포도, 석류, 모과 등 과일의 가공방식은?

A. 도시에 근접한 곳에서는 가공품 판매나 체험장 등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우리농장은 직접 재배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유통만 하고 있다. 각종 과일은 저온창고에 저장하여 보관하면서 동일한 상품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 Q. 병해충 방제 및 관수시설은?

A. 병해충 방제를 위해 최소한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 및 펌프를 설치하여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터널로 연결하여 나무에 직접 분사하거나 바닥 경사면을 통해 흐르면서 땅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Q. 농장경영의 경제성 및 국가 지원은?

A. 고부가가치 농산품인 석류 등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유나 농산품의 가격이 싸서 이득이 별로 없는 상태이며, 국가의 보조금은 적어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려고 하는 실정에 있다.



3. 다룰라세제 노인복지기관(DARÜLACEZE BAŞKANLIĞI)

○ 주소 : Darülaceze Cad. No:51 Okmeydani - ŞİŞLİ/İSTANBUL

○ 건립일 : 1896. 2. 2.(122년 역사)

○ 특징

- 다룰라세제는 술탄(왕)의 개인 사유재산으로 지은 노인 요양시설 및 고아원시설을 갖춘 복지시설임.
- 국가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음.
- 기부금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나오는 임대수익 등으로 운영.
-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특성상 인종에 관계없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함.
- 수용자는 500여명이며 직원이 500여명으로 거의 1:1 맞춤 돌봄 형태로 운영 되고 있음.

○ 술탄 II. 압둘 하미드 카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창립이후 부터 현재까지 122년간 종교, 언어, 인종,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입소인원은 600여명으로 운영비는 100% 기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금 기부나 모든 종류의 기부로 운영되고 입소자격은 이스탄불 출생 거주자 및 인근 지역 거주자에 한하며 빈민자, 극빈자, 고령자, 생활 능력이 없는 자, 집이 없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피검사, AIDS 검사, 알콜 중독 검사, 매독 검사, 전염성 질환 유무를 검사한 후 입소할 수 있다. 터키 주민번호가 없거나 18세 이상의 아들이 있거나, 정신병자, 암환자, 결핵환자, 한센병 환자, 마약 및 알콜 중독자 등은 입소가 불가능하다. 주요시설로는 아동의 보육 및 육아시설, 갱생 시설, 의료시설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입소인원은 현재 집도 없고

병들고 생활 능력이 없어 입소는 하였으나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 주요 질의답변 내용

- Q. 입소희망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가?

A. 이스탄불에만 200개 정도의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며 우리 처럼 무료인 곳부터 200리라~2,000리라까지 다양한 유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만족되는 곳으로 입소하여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다.

- Q.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가능한가?

A. 국가에서 운영하지만 지원금이 필요 없다. 이슬람 문화는 기부문화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워낙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많고 현금 뿐 아니라 예를 들면 건축으로 성공한 사람은 건물을 지어주고 그 건물을 기부하여 월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방식이다.

- Q. 의료진은 얼마나 있는가?

A. 의사 11명이 24시간 일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33명이다. 현재 510명이 입소해 있고 일하는 사람이 450명이니 의사나 간호사 없이도 거의 1명당 1명의 돌보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독일의 선진국시스템도 좋지만 그곳은 유료요양시설이고 우리는 전액 무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완전 무상에 근무자가 많아 1대1 돌봐주는 시스템은 우리뿐이라 생각한다.

- Q. 어르신들은 언제까지 입소해 있으시는가?

A. 본인 의사에 따라 퇴소하고 나가서 생활하시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낼 수도 있다. 고아원의 경우도 갈 곳이 없으면 계속 기거한다. 입소해 있던 어르신의 사후에는 무료로 장례절차가 진행된다. 현 정권에서 시작한 정책으로 모든 시민의 장례비용은 무료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에

모시게 된다. 물론 명당자리나 좋은 무덤 등은 유료로 이용 가능하다.



□ 주요 연수현황

1. 성소피아 성당, 블루모스크

○ 성 소피아 성당은 본당의 넓이가 7,570m²에 달하고, 천장 높이는 55.6m, 돔의 지름은 33m에 달하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높이로, 40개의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구조는 터키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모스크와 얼핏 비슷해 보였으나 아니러니 하게도 처음은 기독교를 위한 건축물로 시작되었다. 비잔틴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공인하고 이곳에

거하기로 정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새로운 도시의 큰 사원’으로 325년 건축을 시작했던 성 소피아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명에 따라 532년~537년에 다시 크게 개축되어 이후 1453년 오스만제국에 정복을 당해 이슬람 사원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성당 주변을 둘러싸는 첨탑이 세워지고, 벽은 회칠로 덧씌워져 이슬람교 코란의 금문자와 문양들로 채워져 있다. 회칠 속으로 성모 마리아의 모자이크 등은 모두 사라져버렸다가 1930년대부터 아타튀르크에 의해 박물관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도 복원작업이 진행되어 두꺼운 회칠이 벗겨지면서 성모마리아를 비롯한 비잔틴시대의 화려한 흔적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기독교 이슬람의 장식물이 공존하고 있어 동서양과 기독교 이슬람 문화의 공존을 볼 수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비잔틴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 터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블루 모스크는 1609년에 착공하여 1616년에 완공된 것으로 6개의 마나레(첨탑)를 가진 것이 특징이며, 오스만제국이 세운 가장 장려한 건축물 중 하나이다. 이스탄불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도 그 장대한 돔과 첨탑을 바라볼 수 있다. 직경 23.5m에 이르는 큰 돔은 4개의 거대한 대리석제의 원주로 지지되어서 광대한 공간을 창출하고, 내벽은 화려한 이즈니크산 타일로 장식되어있으며, 사원의 내부가 파란색과 녹색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블루모스크로 불려진다.

2. 한국공원, 데린구유, 파샤바 계곡

- 앙카라 한국공원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하였을 때 참전 희생자를 위해 건립되었으나 관리가 잘 되지 않다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앙카라 방문 이후 우리나라에서 관리비를 지원하고 관리 인력은 참전용사의 후손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터키는 한국전쟁 시 4번째로 많은 15,000명의 군인을 파견한 나라이다. 그중 90%가 자원병이었으며, 전쟁에 참전했다가 765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터키를 여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한국인에게 너무나 우호적이며 다정했다. 터키에서는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터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해 왔던 것에 대한 반성하는 마음과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고 희생한 그들을 생각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묵념을 하고 예의를 갖추었다.



- 카파도키아의 특이한 지형은 외계행성의 풍경과도 유사하다 하여 영화 ‘스타워즈’의 촬영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깊은 우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데린구유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지하 8층까지 땅굴을 파고 숨어 살던 거대한 지하도시이며 복잡한 미로형태의 구조에도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 시대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최대 3만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지하시설로 정확한 형성

시기는 자료가 없으나 히타이트시대 즈음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관람할 수 있는 구역은 총면적의 10%에 지나지 않는다니 그 규모에 놀랄 만 했다. 총 깊이가 550m에 달하고 1층과 2층에는 마구간과 포도주 압착기, 돌로 만든 두 개의 긴 탁자가 놓여져 있는 식당 혹은 교실이 위치하고 있고, 3층과 4층에는 거주지와 교회, 병기고, 터널이 있다. 십자가 모양의 교회, 지하 감옥 및 요지는 지하 마지막 층에 위치해 있다.

- 파샤바 계곡은 수백만년 전 화산 폭발이 있을 후 화산재가 쌓인 지형이 지각변동과 풍화작용에 의해 생성된 지역으로 로마로부터의 박해를 피해 망명한 기독교인들이 암벽과 바위 계곡 사이를 파고 깎고 다듬어 교회와 집을 지어 훌륭한 요충지로 활용 하였다고 한다. 파샤바 계곡은 자연과 인간이 공들여 함께 만든 걸작품으로 남아있으며 이런 독특한 지형을 모형화한 기념품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3. 안탈라, 파묵칼레, 에페소

- 안탈라는 야자나무 가로수와 지중해를 배경으로 하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고 인기 있는 리조트들이 자라잡고 있어서 지중해 최고의 관광도시이다. 요트들이 늘어서 있는 마리나 항구의 모습이 특히 아름답고, 구시가지인 칼레이치에는 좁은 골목을 따라 전통 목조 가옥들이 밀집해 있고 하드리아누스의 문, 이블리미나레 와 같은 로마시대 유적이 자리 잡고 있어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이다.
- 파묵칼레는 자연이 만들어 낸 경이로운 산물이다. 지면에서 뿜어 나오는 석탄 성분을 포함한 섭씨 35도의 온천수가 100m

높이에서 산 표면으로 흘러나와 많은 수영장을 만들었다. 온천수가 수영장에 흘러 넘쳐서 크림색의 종유석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세계에서 둘도 없는 경관을 만들었다. 목화의 성으로 일컬어지며 하얀색의 절벽과 온천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의 관광지와 그 온천을 이용했던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파묵칼레(석회층)는 세계자연유산으로 히에라폴리스(로마시대 유적)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다.

- 에페소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의해 기원전 6~7세기에 세워진 도시로 로마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로 발전하였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아르테미스 신전 뿐만 아니라 셀수스 도서관, 하드리아누스 신전 등과 마리아의 집, 요한의 교회와 무덤이 남아 있는 곳으로 가도 가도 끝이 없이 나오는 유적지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에페소 유적지는 일종의 고대 계획도시로 규모가 방대하여 둘러 보는데에만 하루가 꼬박 걸릴 듯 하였고, 지진이나 세월에 의해 많은 훼손된 유적들이 있었지만 인상적인 건축물이 많았다. 로마시대의 유적을 살펴볼 수 있는 셀수스 지역 뿐 아니라 에게 해, 더 나아가 터키 전역을 통틀어 양과 규모에서 비할 데 없는 최고의 유적지이며 곳곳에는 도면과 함께 안내판과 음성안내 등이 가능하여 유물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었다.

4. 보스포러스 해협, 그랜드 바자르, 톱카프 궁전 등

- 보스포러스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해협으로 흑해와 마르마라해를 연결하고 있다. 길이가 약 30km, 넓은 곳의 폭이 3,500m, 좁은 곳이 700m로 물 흐름이 세차서 여기 저기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양측 해안에는 고대 유적지,

그림같이 아름다운 전통적인 터키마을, 울창한 숲 등이 곳곳에 있어 장관을 연출한다. 고대, 중세만 해도 지중해와 흑해간의 건의 모든 상거래는 이 해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국제무역에 있어 보스포러스 해협의 중요성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매년 38,000척의 배들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다.

- 터키 최대의 전통시장인 그랜드바자르는 이름 그대로 커다란 시장이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되었다고 한다. 현재 60여개의 미로같은 통로에 5,000여개의 상점이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있다. 2개의 주요 통로 끝에 입구 4개가 있고, 옆으로 난 입구를 포함하면 모두 20여개의 입구가 있어 자칫 길을 잃기 십상이다. 주요 판매품은 금, 은, 보석류의 장신구와 세공품들이고 피혁류, 카펫, 향신료, 도자기, 각종 기념품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요즘은 하루 최대 4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가는 길목은 그리 좋지 않았다. 10여분을 걸어가야하고 가는 길도 험소한데다 포장상태로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처럼 끝없이 이어진 관광객의 행렬은 대단했다. 가장 큰 특징은 불편함과 편리함의 공존이었다. 오래된 시장이 주는 시장 내부의 편의 시설 부족과 비흡연자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공기의 질, 너무 많은 상점과 복잡한 복도가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편리함 부분으로 시장 입구는 모든 종류의 교통수단이 다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버스, 택시, 전차, 오토바이, 심지어 말이 끄는 수레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출입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편리한 환전소와 고객센터였다.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자국의 화폐와 교환하여 시장의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게 환전소가 마련되어 있고, 외국어 통역이 지원되는 고객센터도 마련되어

있어 감탄하였다. 터키시장의 흥정문화는 유럽인들에게는 낯선 신선함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사라져버린 우리네 동네시장을 떠올리게하는 재미가 있다. 터키 상인들은 흥정을 하면서 물건을 팔지 못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 또 다른 특이점은 먹거리가 없다는 점이다. 그랜드 바자르의 성공요인은 오래됐지만 청결하고 상품의 특성화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어딜가나 똑같은 먹거리를 판매하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모습과는 달랐다. 음식 냄새는 사람을 유인하기도 하지만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음식 냄새가 장악한 곳에는 다른 산업이 발을 붙이기 쉽지 않다. 결국 음식 코너와 다른 상품 코너를 분리하는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 톱카프 궁전은 술탄들이 거주했던 복잡하고 광대한 궁전이다. 1453년 콘스탄티노폴을 차지해 이스탄불이라 새로 이름 지었던 메메트 2세가 세웠고, 이 궁전은 이후 400년 동안 계속 증, 개축으로 오스만 건축 양식의 변화과정을 순서대로 볼 수 있는 유적지이다.
- 돌마바흐체 궁전은 바다를 메워서 간척한 곳에 세웠다. 술탄 압둘 마지드가 1853년에 대리석으로 새로 궁전을 지었으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모티브로 지은 유럽풍 건축물이다. 터키 건국의 아버지인 케말 아타튀르크가 1938년 서거할 때까지 사용했던 방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방의 시계는 케말 아타튀르크를 기리기 위하여 지금도 그가 사망한 시각인 9시 5분을 가르키고 있다고 한다.

Ⅱ

결론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거의 최하위 수준이며 노인 빈곤율(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므로 특히 우리군과 같이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복지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부예산에만 의존하는 노인 복지 정책 보다는 터키와 같이 기부금의 확대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요양과 더불어 사회 적응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진 카파도키아에 독특한 지형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우리군의 관광자원 활용과 매우 유사하다. 카파도키아의 열기구 등을 이용한 관광처럼 우리군도 각종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천혜의 관광자원의 멋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파묵칼레가 지형적인 특징 이외에도 인기가 있는 이유는 족욕이라는 체험요소를 관광에 포함시켜서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었고 에페소나 트로이 유적지는 웅장한 규모의 유적들과 유적들에 관련된 스토리텔링이 결합되어서 관광객의 흥미를 돋우는 역할을 했다고 사료된다. 우리군도 지역별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결합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관광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터키의 공동묘지는 우리나라의 공동묘지처럼 혐오시설로 취급받지 않고 문화, 종교적으로 이승과 저승의 교량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주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도시 내부와 근교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 뿐 만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군도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시설들을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터키는 현지 가이드가 모든 곳을 동행하며 가이드 없이는 관광이 불가능하다. 우리와 터키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에게도 다양한 역사 유적과 관광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아는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관광해설사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가이드의 음성해설을 이어폰으로 들으며 현장을 방문해보니,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가령 모두들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우리 관내 관광명소의 해설을 위치에 따라 적용해 놓은 앱을 개발하여 홍보한다면, 현실적인 해설사 부족문제도 해결하고 향후 외국어 안내까지 확대한다면 국내 관광객 뿐 만 아니라 중국, 일본, 영어권 국가들의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사료된다.
- 이번 의원 해외연수를 준비하면서 소중한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외유성 해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과 의원 간의 토론을

통한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더 좋은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열심히 견학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단기간의 일정으로 인하여 계획하고 얻고자 했던 부분들을 100%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의원 해외연수를 통하여 한정되어 있는 생각의 깊이를 폭 넓게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시설과 사업들을 비교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익한 연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 체득한 경험과 정보를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 살기 좋은 웅진군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다.